

기술창업교육캠프 참가 대학생의 창업역량 변화에 관한 연구

전주현[†], 임경수^{**}

^{*}중앙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교육평가인증센터

A Study on the Change in Start-up Competence of College Students Participating in Technology Start-up Education Camp

Jeon, Ju Hyun^{*†}, Lim, Kyoung Su^{**}

^{*}Innovation Center for Engineering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Educational Evaluation & Certification Center, Konkuk University Glocal Campus

ABSTRACT

It was only 2010 when start-up education spread to undergraduate education in South Korea. Start-up education was conducted so late that there are insufficient studies of evaluation and feedback on the effectiveness of start-up education. Education is a complex concept of teaching people in a desirable direction and developing their inherent abilities. Based on this, start-up education can be defined as cultivating students' entrepreneurial spirit internally and making them exhibit start-up competence externally by teaching them the knowledge, skills and attitudes necessary for business start-up and developing abilities such as creativity, challenge spirit and problem-solving skills. This study conducted pre and post survey to check if the education camp for the technology start-up, which is a practice-oriented start-up education, has an effect on the change of the participating students' perceptions about the business start-up. This study would analyze various factors of college students' business start-up through a factorial analysis so that the quantitative accumulation of start-up education can lead to a qualitative change and propose measures for the management of the quality of the education.

Keywords: Engineering education, Competence, Start-up Education

1. 서 론

대학의 교육내용이 보다 직업 지향적 방향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적정 인적자본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고등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를 강화하고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고등교육개혁이 시행되고 있다(볼로냐 프로세스, 2009; 전주현, 2013). 대학은 창업교육을 통해 대학생의 창의적 발상과 창업역량을 함양하고, 대학 내에 창업지원 인프라를 조성함으로써 혁신적 제품 개발이나 기술 사업화의 기회를 제공한다. 대학을 발판으로 삼아 사업 초기에 필요한 역량을 구비한 대학생 창업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치열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의 실리콘벨리는 스탠퍼드대학교와 버클리대학교, 루트128은 하버드대학교와 메사추세츠공과대학교

로부터 기술혁신적인 벤처창업가들을 흡수하고 있다. 창조적 파괴를 주창한 조셉 슈페터가 1946년 하버드대학에 창업연구센터를 설립한 이래 미국 대학들은 창업교육, 엔젤펀딩, 연구개발 인프라 등을 확대(이우진, 김용태, 황보운, 2013)함으로써 혁신적 기술 기반의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게 되었다.

국내에서 대학의 창업교육은 2004년 중소기업청이 창업대학원 설립을 지원하면서 전국적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했지만 학부교육으로 파급된 건 2010년대 들어서다. 2012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61개 대학에 창업교육센터 설치를 지원하였고, 2013년엔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렇게 후발적으로 창업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 창업교육의 효과성과 평가·환류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창업대학원이 생긴지 10년이 넘으면서 다양한 창업연구들이 생성되고 있지만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창업교육을 조명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특히 정보통신과 제조업의 융합, 지식서비스의 발달 등 지능정보사회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기술기반 창업교육에 대한 평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학은 학생들의 혁신적인

Received June 7, 2017; Revised July 7, 2017

Accepted July 28, 2017

† Corresponding Author: jhjeon@cuu.ac.kr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대학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과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지원해 기술 사업화의 창업 생태계를 조성(Neck & Greene, 2011)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서울 소재 A대학의 기술창업교육캠프를 대상으로 한다. 이 캠프는 공학교육혁신센터가 2017년에 운영한 창업교육 프로그램으로 공학계열과 경영계열 학생 61명이 참여하였으며, 23시간의 합숙 집합교육형태로 이루어졌다. 캠프 참가를 전후로 대학생들의 창업 의식과 역량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창업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평가하는 게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통해 대학의 창업교육에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연구 배경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창업교육캠프를 통해 참여 대학생들의 창업의지, 창업기회인식, 창업효능감, 창업실패인식 등 창업 의식에 변화가 있는가? 둘째, 참여 대학생들의 창업역량에는 차이가 발생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제 4차 산업혁명과 대학 창업교육

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산업 및 경제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창의력 및 문제해결 역량에 기반하여 혁신적인 제품 또는 서비스를 기획, 실현할 수 있는 기술기반의 청년혁신가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늘날의 빠른 환경에 대응하는 동적 역량을 보유하고 과학기술을 이해·활용할 수 있는 청년 인재 대상의 기술기반 창업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教育)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람을 가르친다(敎)는 의미와 사람이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을 기른다(育)는 의미의 복합적 개념이다. 이에 근거할 때 창업교육은 창업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가르치고 창의성, 도전정신, 문제해결력 등의 능력을 기름으로써 내적으로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고, 외적으로 창업역량을 발휘토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학의 창업교육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사업화를 이룰 수 있는 창의성 중심의 학습방법에 주안점을 둔다(박재환, 안태욱, 2016)는 점이 일반인 창업교육과의 차이점이다. 이는 대학생이 일반인에 비해 창업 경험과 지식 측면에서는 미숙하지만 창의성과 혁신성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풍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분야의 선행연구는 대학 창업교육의 성공요인에 관한 사례연구와 창업교육이 대학생의 창업 태도나 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로 구분된다. 사례연구는 미국 대학사례를 분석하여 창업교육 초기단계의 국내 대학들에 시사점을 제공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종인, 박치관(2013)은 창업교육정책, 미국 대학의 창업학 전공 및 교육과정, 인프라와 산업연계 생태계 등을 분석하였고, 이우진 외(2013)는 미국 창업교육의 역사를 점검하고, 5개 대학의 교육과정, 지원프로그램, 특징 등을 공통항목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이에 비해 실증연구는 창업교육의 핵심적 목표인 창업의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재석, 이상명(2015)은 이공계 대학생들의 창업교육 수강이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기업가지향성과 환경적 요인이 조절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박재환, 안태욱(2016)은 창업교육 특성이 실무중심 강의 내용, 교육서비스 품질, 적절한 교육환경 등 3가지 요인으로 구분됨을 분석하고, 이들 요인이 모두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국내 대학이 처한 창업환경이 미국 대학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 창업교육의 목적이 대학생의 창업의지 고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업기회를 파악하고 실패의 원인을 분석할 줄 알며, 창업 효능감을 높이고, 창업역량을 함양하는 등의 다양한 영역에 있다는 점 등에서 한계와 제약이 있었다. 실제로 창업교육과 대학생 창업의지의 관계가 부정적이라는 연구(Karlan & Valdivia, 2011)나 오히려 창업교육이 대학생의 창업의지를 떨어뜨린다는 연구(Oosterbeek, Praag, & Ijsselstein, 2010)가 있음을 감안하면 대학 창업교육은 보다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고, 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 접근이 요구된다.

2. 대학생 창업의 연구 변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창업 연구는 심리적 요인, 인지적 요인, 행동적 요인 등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대학생들은 창업에 대해 막연하게 매력을 느낄 수 있으나 사업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 미숙으로 인해 인지된 매력이나 인지된 타당성, 실질적인 행동성향 등 창업의지의 본질적 속성(이재석 외, 2015)을 체득하고 있지는 못하다. 아울러 창업기회를 포착하고, 이를 주변 자원과 연결하여 사업화하는 역량이나 위험요인에 따른 실패를 예측하고 관리하는 역량도 구비되지 않았다.

선행연구들은 기업가정신, 창업의지, 창업효능감, 창업기회인식, 창업실패인식, 창업역량 등을 대학생 창업의 주요 요인으로 설정하고 있다. 양동우(2015)는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이 창업효능감과 창업의지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 창업기회인식이 매개효과를 갖는다고 제시했다. 박재환, 최민정(2016)은 창업효능감과 창업의지 관계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현경, 이일환(2016) 또한 대학생의 창의성과 자기효능감이 창업의지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이 밖에 하규수, 윤백중(2011)은 대학생의 창업성공에 대한 인식이

창업의도에 정적인 영향력을 갖는다면 창업실패 인식은 부정적인 영향력을 갖는다고 입증하였다.

창업역량과 관련해서 임아름, 김형철, 김광필(2015)은 기업가역량, 관리역량, 기술역량, 창의역량 등 4가지의 창업역량을 요인으로 구분하고, 이들 요인이 대학생의 창업기회 발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창업기회 활용이 기회발견과 창업성과를 매개한다고 분석하였다. 이인숙, 김외순, 나영아(2013)는 조리·외식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창업역량과 창업의지의 긍정적 영향 관계를 밝히고, 정책지원·기술지식·역할모델 등 청년사업가로서의 성장요인이 창업역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그 동안에 인과관계 중심으로 밝혀진 대학생 창업의 요인들을 대학생 창업진단영역으로 종합하여 구성하였다. 관련 문헌과 연구결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미래 신사업 부상에 따른 창업 및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구체적인 역량을 식별하였다.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기업가정신을 창업역량에 포함시켜 기업가적 역량(임아름 외, 2015; Davidsson, 2005)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적인 창업진단영역은 창업의지, 창업효능감, 창업기회인식, 창업실패인식, 창업역량-기업가적 역량, 창업역량-관리적 역량, 창업역량-기술적 역량, 창업역량-창의적 역량 등 8가지 변인으로 구성되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서울 소재 A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가 개최한 기술창업교육캠프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캠프는 2017년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23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연구자들은 학생들에게 적절한 창업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수업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팀을 구성하고, 사업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경기도 소재의 연수원 공간을 제공하였다.

Table 1 기술창업교육캠프 참가자 현황

구분		인원(명)	비율(%)
성별	남	43	70.5
	여	18	29.5
학년	1학년	2	3.3
	2학년	28	45.9
	3학년	21	34.4
	4학년	10	16.4
전공	공학	43	70.5
	경제·경영	18	29.5
전체		61	100.0

참가자는 61명으로 기술통계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기술기반의 창업교육을 위해 공학전공 학생들과 경제·경영전공 학생들을 함께 모집하였다. 참가자 모집은 한달 간 학내 현수막 홍보와 공학교육혁신센터 홈페이지 신청 접수를 통해 이루어졌다. 신청인원은 모두 81명이며, 실제 참가인원은 61명으로 75.3%의 참가율을 나타냈다.

2. 프로그램 개발 및 창업팀 구성

기술창업교육캠프는 실무중심 강의, 팀 빌딩 및 팀별 사업계획서 작성, 멘토링, 창업경진대회 등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선행연구의 창업교육 특성을 반영하여 실무중심 강의를 전반부에 배치하였다. 창업사례를 통한 성공전략, 기술융합을 통한 사업아이템 개발, 사업계획서 작성법, 투자계획 수립 등 4개 강의의 모듈을 8시간으로 구성하였으며 다음 Fig.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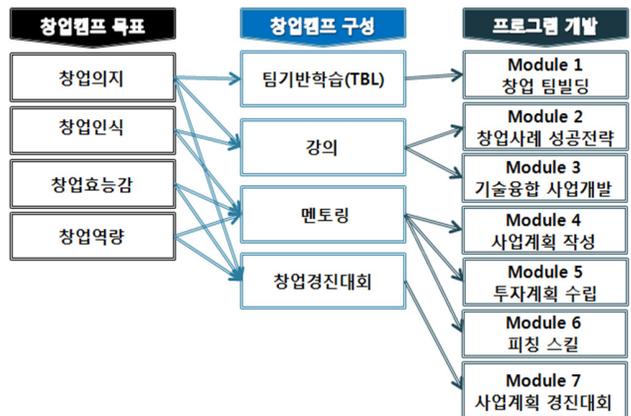


Fig. 1 프로그램 개발 및 구성

둘째, 기술기반 벤처창업의 특성상 연구·개발(R&D)과 경영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여 팀기반 학습(TBL: Team-based Learning)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1단계로 창업팀 구성(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학생의 발표 내용을 듣고 개인별로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13개 팀을 구성), 2단계로 팀 빌딩(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팀 창업 아이템을 구체화하고, 팀원들의 직무 역할과 책임을 수립), 3단계로 팀별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수행하였다.

셋째, 참가 학생들이 교육기간 내 창업지식을 자기주도적으로 구성하고, 경험하지 못한 창업의 지식·기술·태도 등을 모델링할 수 있도록 멘토링을 기획하였다. 이를 위해 벤처기업 창업 경험이 풍부하고, 사업개발·경영전략·재무 및 투자 등 3가지 영역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멘토 3인을 배치하였다.

넷째, 참가 학생들의 동기 부여와 창업활동의 평가를 위해 창업경진대회를 프로그램 후반부에 추가하였다. 경진대회는

13개 팀이 각각 5분씩 발표하고, 팀별로 공학교육혁신센터 담당교수와 멘토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5분씩 질의응답하여 10분 내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3. 조사 및 분석 방법

이 연구는 실전중심의 창업교육인 기술창업교육캠프가 참가 학생들의 창업인식 변화에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사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조사는 참가 학생들이 연수원에 모여 캠프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루어졌으며, 사후조사는 캠프 마지막 시간인 창업경진대회가 종료된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조사 내용은 대학생 창업진단영역으로 설정한 8가지 요인에 해당된다. 설문내용은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정리하였으며, 모두 4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예를 들어 창업의지에 관한 사항은 ‘나는 창업을 생각하면 설레고 흥분된다’를 포함한 7가지 문항이며, 창업기회인식에 관한 사항은 ‘나는 새로운 사업정보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자주 교류한다’를 포함한 6가지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Table 2 설문문항 구성

요인	내용 구성	문항수	참고문헌
창업의지	- 창업에 대한 열정 - 취업과의 비교 - 상대적 소득 욕구 - 사업가 성공 의지	7개	양동우(2015) 김성순(2009)
창업기회인식	- 타인과의 교류 - 사업감지의 감각 - 무경험분야 인식 - 아이디어 주의성	6개	양동우(2015) 최민정(2016)
창업효능감	- 고난 극복 의지 - 확실한 의사결정 - 문제해결 자신감	5개	양동우(2015)
창업실패인식	- 투자금 손실 부담 - 가정파탄 부담 - 실패자 인식 부담	5개	이재호(2016)
창업역량-기업가적역량	- 고객지향 마인드 - 경영자원 활용력 - 경쟁업체 파악력	7개	임아름(2015)
창업역량-관리적역량	- 동기부여 능력 - 자원 배분·조정력 - 조직 장악력	6개	
창업역량-기술적역량	- 기술적 문제해결 - 기술인력 확보 - 기술혁신 능력	6개	
창업역량-창의적역량	- 아이디어 발산 - 독창적 고안 - 독특한 해결방법	6개	

이와 같은 설문문항은 양동우(2015)를 비롯한 창업연구의 검증된 문항들을 활용하였다. 연구의 모든 변수는 Likert 5점 척도를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비교하기 위해 SPSS 23.0을 이용하여 대응표본의 T검정(paired samples T Test)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사전조사 영역별 개별 값과 사후조사 영역별 개별 값의 차이를 비교하여 기술창업교육캠프 이전과 이후의 차이 값의 평균을 알아보고, 양측검정의 유의확률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IV. 연구결과

참가 학생들의 기술창업교육캠프 참가 전 창업요인별 진단 결과를 보면 창업의지가 3.7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창업역량 중 관리적 역량 3.55, 창업역량 중 창의적 역량 3.49 순으로 높았다. 이에 비해 창업기회인식이 3.14로 가장 낮았고, 그 다음으로 창업역량 중 기술적 역량이 3.19로 낮은 편이었다. 기술창업교육캠프 참가 후 창업요인별 진단 결과를 보면 여전히 창업의지가 3.73으로 가장 높았지만 그 다음으로 창업효능감이 3.54로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승하였다.

대응표본 상관계수를 보면 모든 요인의 사전진단과 사후진단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가 학생들의 사전진단과 사후진단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창업요인별로 대응표본 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창업의지는 캠프 참가 전 대비 참가 후에 평균 0.46 하락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창업기회인식은 평균 0.30 상승하였고, 유의확률 0.015(p<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효능감은 평균 0.08 상승하였으나 참가 전과 참가 후에 차이가 없었다. 창업실패인식은 평균 0.11 하락하였으나 이 또한 참가 전·후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3 기술창업교육캠프 창업요인 사전·사후 비교

창업요인	N	사전값		사후값		평균차		t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창업의지	61	3.77	0.65	3.73	0.69	0.46	0.93	0.39
창업기회인식	61	3.14	0.58	3.45	0.62	-0.30	0.95	-2.50*
창업효능감	61	3.47	0.73	3.54	0.70	-0.08	1.06	-0.55
창업실패인식	61	3.28	0.75	3.17	0.75	0.11	1.16	0.73
기업가적역량	61	3.47	0.42	3.58	0.57	-0.11	0.75	-1.15
관리적역량	61	3.56	0.54	2.96	0.64	0.59	0.90	5.06**
기술적역량	61	3.19	0.65	3.36	0.76	-0.17	1.12	-1.22
창의적역량	61	3.49	0.69	3.51	0.86	-0.22	1.19	-0.14

* p < .05, ** p < .01

창업역량을 보면 기업가적 역량은 참가 전에 비해 참가 후에 평균 0.11 상승하였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관리적 역량은 참가 전에 비해 참가 후에 평균 0.59 하락했다. 이는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적 역량은 참가 전·후 평균 0.17 상승하였으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창의적 역량은 0.22 상승하였으나 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I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대학의 창업교육이 활성화되면서 전공 및 교양과정에서 창업교육의 학점 비중이 높아짐은 물론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들이 늘어나고 있다. 창업선도대학과 같은 정부 차원의 창업지원 사업과 맞물려 대학 내에서 창업캠프, 창업경진대회, 창업멘토링 등과 같은 무형식 학습(informal learning)이 양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창업교육에 대한 연구는 교육의 양적 축적이 질적 전환으로 변환될 수 있도록 대학생 창업의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창업역량 강화의 질 관리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대학의 대표적인 비교과 창업교육인 기술창업교육 캠프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대학의 창업교육은 학생들의 높은 창업의지에 상응하여 사업기회의 탐색·이해·활용,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지속적 관심 등 창업에 대한 인지적 능력을 향상시킬 실질적 교육내용을 담보해야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창업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이 보인 가장 큰 변화는 창업기회를 인식하는 인지적 능력의 향상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양동우(2015), 임아름 외(2016)의 연구를 지지하는 것이다.

둘째, 기술창업교육캠프 완료 시점에서 참가 학생들의 창업역량 중 관리적 역량이 하락했다는 연구 결과는 다중적인 의미를 갖는다. 관리적 역량은 창업팀 구성원들의 동기 부여를 통해 경영성과를 달성하는 능력, 자원을 배분하고 과업을 조정하는 능력, 조직을 장악하고 지도하는 능력, 권한을 효율적으로 위임하는 능력, 비전을 갖고 이를 창업팀 구성원들에게 전달하는 능력 등으로 비즈니스 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들에게 고차원적 능력에 속한다.

이로 인해 비교과 프로그램의 창업캠프에서 대학생들은 관리적 역량에 대한 개인적 결함들 경험함으로써 오히려 역량 수준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지체 현상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캠프에 참가한 대학생들은 창업 아이디어를 개선하고,

상품화나 마케팅에 관한 토론을 활발하게 전개하였지만 팀 리더십을 발휘하고, 재무계획을 수립하는 영역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따라서 대학생 창업역량의 관리적 역량은 단기간에 습득되기 어려운 만큼 학습의 발달단계에 따라 지속적인 교육과정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이 연구 결과는 대학 창업교육 연구가 앞으로 대학생 창업역량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2. 제언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대학의 창업교육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창업역량에 대한 장기간의 종단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기술창업교육캠프라는 단기간의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만큼 창업효능감, 창업역량 등과 같은 장기간의 교육 효과성을 검증하기 어려웠다. 저학년층을 대상으로 한 창업교양과정에서부터 고학년 대상의 창업전공교육에 이르는 발달단계를 통해 어떻게 대학생들의 창업역량을 구성하고, 성장하게 되는지를 연구해야 한다.

둘째, 대학생의 창업요인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연구방법이 고안되어야 한다. 최근까지 대학생 창업에 대한 연구는 창업의지를 중심으로 연구 변인이 제한된 경향이 있다. 창업역량이 독립변수로 설정된 연구는 다수 있으나 종속변수로 설정된 연구는 부족하며, 다양한 변인들의 관계와 변화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도 부족한 편이다. 연구 방법에 있어서도 양적 연구는 물론 내러티브 연구, 문화기술지 등 질적 연구로의 확대도 요구된다.

참고문헌

1. 김성순(2010). 한국과 중국의 잠재적 창업가의 창업의지에 관한 비교연구.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대학원.
2. 박재환, 안태욱(2016). 대학생 창업교육 특성과 창업의지와외의 관계 연구: 전공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경영교육연구*, 31(5), 1-24.
3. 박재환, 최민정(2016). 대학생의 창업효능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1(2), 9-19.
4. 양동우(2015). 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기업가정신이 창업효능감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창업기회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대학원.
5. 이우진, 김용태, 황보윤(2013). 해외 대학의 창업교육 현황과 특징에 관한 연구: 미국 5개 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8(1), 99-110.
6. 이재석, 이상명(2015).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의 관계: 기업가

지향성과 환경적 요인의 조절효과. *벤처창업연구*, 10(3), 61-74.

7. 이재호(2016). 창업동기와 실패부담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국가간 비교를 통한 사회안전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8. 이현경, 이일한(2016). 대학생의 개인 창의성과 자기효능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1(3), 111-120.

9. 임아름(2015). 청년창업가의 역량이 창업행동과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10. 임아름, 김형철, 김권필(2015). 청년창업가의 역량이 창업행동과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경영컨설팅연구*, 15(3), 143-154.

11. 전주현(2013). 공학교육인증제도 참여 대학생의 공학핵심역량이 고용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12. 최민정(2016). 소상공인 창업교육이 기회인식 및 평가에 미치는 영향 - 창업효능감과 조절초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13. 최종인, 박치관(2013). 대학 창업교육 핵심 성공요인: 미국 대학 사례의 시사점. *벤처창업연구*, 8(3), 85-96.

14. 하규수, 윤백중(2011). 대학생의 창업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인식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2(8), 3406-3414.

15. Davidsson, P. (2005). Entrepreneurship research innovator, coordinator and disseminator. *Small Business Economics*, 24, 351-358.

16. Neck, H. M., & Greene, P. G. (2011). Entrepreneurship education: Known worlds and new frontier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49(1), 55-70.

17. Karlan, D., & Valdivia, M. (2011). Teaching entrepreneurship: Impact of business training on microfinance clients and institution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3(2), 510-527.

18. Oosterbeek, H., van Praag, M., & Ijsselstein, A. (2010).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entrepreneurship skills and motivation. *European Economic Review*. 442-454.



전주현 (Jeon, Ju Hyun)

2002년: 공학사·공학석사·공학박사
 1999년: 아산재단 의료정보팀
 2005년: 청운대학교 인터넷공학과 전임강사
 2013년: 중앙대학교 HRD정책학 박사
 2015년: 고려대학교 컴퓨터과학과 박사수로

2012년~현재: 중앙대 공학교육혁신센터 연구전담교수
 관심분야: 공학교육인증, 역량기반 교육, 소프트웨어교육, 컴퓨팅적 사고, 인적자원개발
 E-mail: jhjeon@cau.ac.kr



임경수 (Lim, Kyoung Su)

2008년: 동부CN(주) 이러닝사업팀 차장
 2013년: 중앙대학교 HRD정책학 박사
 2015년: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강의전담교수
 2016년: 중앙대학교 글로벌HRD대학원 겸임교수
 2017년~현재: 건국대 글로벌캠퍼스 교육평가인증센터 조교수

관심분야: 교육정책, 교육평가, 역량기반 교육, 인적자원개발
 E-mail: limksoo@kku.ac.kr